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24권 제1호, 2013년 3월
J Korean Acad Community Health Nurs Vol. 24 No. 1, 29-39, March 2013
ISSN 1225-9594
http://dx.doi.org/10.12799/jkachn.2013.24.1.29

여성 결혼이민자 남편의 스트레스, 자존감 및 무력감

김계하[1] · 선정주[2] · 오숙희[3]

조선대학교 간호학과[1], 청암대학교 간호학과[2], 전북과학대학 간호과[3]

Stress, Self-esteem, and Powerlessness in Korean Husbands Married to Foreign Wives

Kim, Kyeha[1] · Sun, Jeong Ju[2] · Oh, Suk Hee[3]

[1]Department of Nursing, Chosun University, Gwangju
[2]Department of Nursing, Chongam College, Suncheon
[3]Department of Nursing, Jeonbuk Science College, Jeongeup,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levels of stress, self-esteem, and powerlessness in Korean husbands married to foreigner wives. **Methods:** The subjects were 183 Korean men who were living with foreigner wives in the Gwangju, Jeonnam and Jeonnbuk areas. Data were collected from January to May 2012 and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backward multiple regression with the SPSS PC WIN version 18.0. **Results:** The average level of stress was 4.48, with difficulties in international marriage experienced by the subjects due to differences in language and culture. The average reported self-esteem score was 29.69, and the average powerlessness score 117.76.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erceived powerlessness depending on the employment statuses, income levels, and nationalities of the participants' wives, and their perceived levels of satisfaction with living with a foreigner wife. Powerlessnes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tress (r=.41, p<.001),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self-esteem (r=-.63, p<.001). The factors affecting the perceived powerlessness included self-esteem (β=-.54, p<.001), stress (β=.28, p<.001), lower income (β=.13, p=.016), and working wife (β=.12, p=.036). **Conclusion:** Healthcare providers need to explore strategies to improve self-esteem and powerlessness in Korean men married to foreigner wives.

Key Words: Stress, Self-esteem, Helplessness, Men, Marriage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은 1990년대 초 한국의 농촌총각과 중국 연변의 조선족 여성의 짝지어주기 운동에서부터 시작되어 2011년 현재 외국인과의 혼인은 29,762건으로 총 인구건수의 9.0%를 차지한다(Statistics Korea, 2012). 특히,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국제결혼은 22,265건으로 전체 외국인과의 혼인 중 74.8%를 차지하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Statistics Korea, 2012).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한국으로 시집 온 이주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는데

주요어: 국제결혼, 남성, 스트레스, 자존감, 무력감

Corresponding author: Kim, Kye Ha
Department of Nursing, Chosun University, 309 Pilmun-daero, Dong-gu, Gwangju 501-759, Korea.
Tel: +82-62-230-6326, Fax: +82-62-230-6329, E-mail: kyehakim@hanmail.net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 from Chosun University, 2011.

투고일: 2012년 11월 6일 / 심사완료일: 2013년 2월 13일 / 게재확정일: 2013년 3월 6일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국제결혼 여성들은 한국에서 문화적 이질감이나 의사소통의 어려움, 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경제적 어려움, 남편과의 성격차이 등으로 인해 한국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2008). 따라서 지금까지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의 급증과 함께 이주여성들 관점에서의 애로 사항이나 문제점들이 부각되었고 이주여성과 관련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Kim, 2008; Wong et al., 2011).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다문화가정의 주된 구성원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이들에 비해 주변적 위치로 밀려났던 국제결혼 남편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심리적 문제 등을 파악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물론 외국인 여성들이 낯선 한국으로 와서 경험하는 결혼생활에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하나 국제결혼이라는 환경적 변화는 남성들에게도 역시 사회적, 개인적, 가정적으로 많은 변화와 적응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갈등과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된다. 실제로 Kim (2009)은 어려움을 느끼는 양상은 다를 수 있으나 국제결혼을 한 남편 또한 소통의 단절이라는 유사한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Lee (2010) 역시 한국인 남성들이 결혼 초기에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관심과 긴장감으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불편감을 감수하면서 배우자에게 한국말을 가르쳐주기 위한 세심한 노력도 하였으나 갈수록 배우자와의 문화적 이질감이나 성격차이를 크게 느껴 결혼생활에 대한 후회와 갈등으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편의 경우 국제결혼을 하기 전 국내에서 많은 한국여성들과 선을 본 경험이 있었으나 대부분 부정적인 경험이 많았다(Lee, 2010). 결혼 조건으로 경제적 능력이나 외모, 사회적 위치를 요구하는 한국 여성들에게 배우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므로 한국여성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남성들의 욕구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좌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10).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은 대상자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Kim & Um, 2011)에서 대상자들은 한국의 농촌남성들이 국제결혼을 하는 것은 외국인 여성이 한국여성보다 좋아서 국제결혼을 하는 것보다는 어쩔 수 없이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본인들이 국제결혼을 한다면 부모님이 반대하신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아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남성들이 이러한 사회적 시선을 인식할 때 자존감이 많이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남성의 자존감 정도를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중재를 실시하는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자존감과 더불어 자신이 원하는 결혼을 결정할 수 없는 대상자들은 무력감을 느낄 수 있다. 무력감은 바라는 결과는 일어나지 않고, 혐오스런 결과가 발생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기대감에서 온다(Metalsky, Joiner, Hardin, & Abramson, 1993). 과거에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Kim (2006)의 연구에서 이주여성의 자존감이 낮을수록 부부갈등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2010) 자료에 의하면 다문화 가정 여성의 40.9%가 지난 1년간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Jeon, 2012)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무력감과 자존감의 손상 간에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국제결혼을 한 남편들의 자존감뿐만 아니라 무력감을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된 경우, 심리적 적응에 있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북한이탈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Kim, N. Y., 2012)에서는 대상자들이 인지하는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Kim, 2010)에서는 대상자들의 가족환경 스트레스가 무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Park & Kim, 2008)에서도 대상자들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습된 무력감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대상자들을 통해 스트레스와 자존감 및 무력감 간의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이들의 자녀에 관한 많은 조사연구와 중재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Kim & Um, 2011), 결혼만족도나 부부관계 적응에 관한 한국인 남편에 대한 연구 등(Lee, 2010; Seo & Jeong, 2010)은 진행되고 있으나 국제결혼 남성의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조사는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현재보다 더욱 실질적인 다문화 가정 관리와 여러 가지 적절한 건강적 측면에서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조사연구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 결혼이민자 남편의 스트레스와 자존감 및 무력감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대상자의 무력감과 관련된 요인을 조사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여성 결혼이민자 남편의 스트레스와 자존감 및 무력감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스트레스와 자존감 및 무력감 정도를 조사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와 자존감 및 무력감 정도를 알아본다.
- 대상자의 스트레스 정도와 자존감 및 무력감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 대상자의 무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성 결혼이민자 남편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 자존감 및 무력감 간의 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한 단면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광주 및 전남과 전북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성으로 현재 국제결혼을 하여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는 한국인 남편 183명이다.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경우이다.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자료수집에 앞서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진행절차 및 연구로 인한 이익과 불이익을 설명하였다. 또한, 본 자료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익명이 보장되며 대상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설문 응답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연구 표본의 크기는 일원 분산분석의 표본 수 결정을 위한 G*Power 3.12 분석에 의해 α=.05, power=.80, 중간 효과 크기 F=0.25, 집단수(n=4)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그룹 당 45명으로 최소 표본 수가 총 180명인 것을 근거로 산출하였고, 결측치가 있을 경우를 감안하여 대상자 22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27명을 제외한 183명이 최종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3. 연구도구

1) 스트레스

본 연구대상자의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시각적 상사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를 사용하였다(Her, Kim, & Oh, 2012; Jang & Kim, 2009; Kim, Lee, & Lee, 2010). VAS는 10 cm의 수평선을 이용하여 왼쪽 끝 0 cm인 0점은 '전혀 스트레스가 없다' 오른쪽 끝 10 cm인 10점은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지침을 주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자존감

대상자의 자존감은 Rosenberg (1965)가 개발하고 Jeon (1974)이 번역한 4점 척도의 Rosenberg's self-esteem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자기수용 측면을 측정하는 긍정적 내용의 5문항과 부정적 내용의 5문항 등의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적인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4점을 주었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환산 처리하였다. 최저 10점에서 최대 40점의 범위를 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Rosenberg (1965)의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92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79였다.

3) 무력감

무력감을 측정하기 위해 Shin (1990)이 개발한 무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신뢰도와 구성타당도 모두 입증된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6점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부정적인 문항은 '전혀 아니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6점을 주었으며 긍정적인 문항은 역 환산 처리하였다. 최저 45점에서 최대 270점의 범위를 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무력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78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97이었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였으며, 광주 및 전남과 전북의 7개 지역(목표, 무안, 나주, 영광, 고창, 장성, 정읍)에 소재한 이주여성 쉼터 센터 등을 연구자들이 방문하여 각 기관의 기관장과 이주여성 담당 책임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참여의 동의를 구하였다. 이후 본 연구자들 및 방문간호사들이 직접 각 가정을 방문하여 본 연구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다시 설명하였다. 모든 설명을 들은 후에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대상자들에 한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이들로 하여금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참여대상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연구 절차, 연구 참여 시 익명성 보장, 자발적인 연구참여 동의와 거부, 중도포기 가능, 발생가능한 이익과 불이익 등을 포함한 내용을 구두와 서면으로 설명하고, 자발적 참여를 원할 경우에 한해서만 동의서에 자필 서명을 한 후, 설문에 참여하게 하였다.

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유의수준은 .05를 기준으로 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스트레스, 자존감 및 무력감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실수, 백분율을 구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자존감 및 무력감을 비교하기 위해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 검정을 위해 Scheffé test를 이용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스트레스, 자존감 및 무력감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무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후진제거 다중선형회귀분석(Backward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3.1세로 40대가 59.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종교를 가지지 않은 경우는 60.1%로 가장 많았고, 대상자의 91.8%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대상자의 직업은 주로 기술직(33.3%)이 많았으며,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도 27.9%였다. 아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21명(11.5%)이었고, 그 중 절반 이상(66.7%)이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었다. 대상자의 월수입은 10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49.7%로 가장 많았고, 현재 아내 및 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가 38.8%였다. 대상자의 52.5%는 자녀가 1명있고, 자신의 건강상태를 '건강하다'고 지각한 경우가 60.7%로 가장 많았고, 현재 결혼기간은 3년 이상에서 6년 미만이 45.9%, 6년 이상은 30.6%였다.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이 45.9%, 필리핀 20.8%, 캄보디아가 18.0%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와 외국인 아내와의 평균 나이 차는 11.9세이고, 11세에서 20세 차이가 51.9%로 가장 많았고, 10세 이하가 44.8%였다. 외국인 아내에 대한 만족은 대상자의 94.0%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외국인 아내와의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애로 사항을 살펴본 결과, 언어 및 문화 차이가 26.2%로 가장 많았다. '음식이 맞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도 24.0%였고, 다음은 아내의 이해할 수 없는 '성격'때문에 힘들다고 응답한 경우가 14.2%였다(Table 1).

2. 스트레스, 자존감 및 무력감 정도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외국인 부인과 살면서 지난 한 달 동안 느꼈던 스트레스 정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4.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존감의 경우는 10~40점까지 가능한 점수 중에서 평균 29.69로 중간 점수보다 조금 더 높았다. 무력감은 45점에서 270점까지 가능한데 평균은 117.76이었으며 항목별로는 '장래에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답변하였다(Table 2).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자존감, 무력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는 대상자의 직업유무(t=-2.81, p=.006), 결혼기간(F=3.21, p=.024), 아내 국적(F=6.74, p<.001), 나이 차(F=6.07, p=.003), 외국인 아내에 대한 만족 유무(t=-4.33,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 결과, 결혼기간은 6년 이상인 대상자가 1년 미만인 대상자보다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내의 국적에서는 필리핀 국적의 아내와 살고 있는 대상자의 스트레스 정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일본이나 중국 등의 기타 국적, 베트남, 캄보디아 순으로 스트레스 정도가 높았다. 나이 차의 경우는 아내와 10세 이하의 차이가 나는 대상자가 11~20세 차이가 나는 대상자보다 스트레스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Table 3).

대상자의 자존감은 아내의 직업유무(t=-2.63, p=.009)에 따라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3).

무력감의 경우는 일반적 특성 중 아내의 직업유무(t=2.64, p=.009), 월수입(F=6.87, p<.001), 아내 국적(F=3.66, p=.013), 외국인 아내에 대한 만족 유무(t=-2.89, p=.004)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 검정 결과, 월수입이 적을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8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 (year)	25~39	52 (28.4)
	40~49	109 (59.6)
	50~60	22 (12.0)
Religion	Having	73 (39.9)
	Not having	110 (60.1)
Employment status of the subject	Employed	168 (91.8)
	Unemployed	15 (8.2)
Employment type of the subject (n=168)	Office job	27 (14.8)
	A private business	32 (17.5)
	Technical work	61 (33.3)
	Production workers	51 (27.9)
	Laborer	12 (6.6)
Employment status of the wife	Employed	21 (11.5)
	Unemployed	162 (88.5)
Employment type of the wife (n=21)	Office job	5 (23.8)
	Technical work	2 (9.5)
	Laborer	14 (66.7)
Income (100,000 won/month)	< 10	24 (13.1)
	≥ 10~< 20	91 (49.7)
	≥ 20~< 30	61 (33.3)
	≥ 30	7 (3.8)
Living arrangement	With a wife	31 (16.9)
	With a wife & parents	12 (6.6)
	With a wife & children	71 (38.8)
	With a wife & parents & children	48 (26.2)
	Others	21 (11.5)
Number of children	0	42 (23.0)
	1	96 (52.5)
	2	35 (19.1)
	≥ 3	10 (5.5)
Status of health	Very good	14 (7.7)
	Good	111 (60.7)
	Average	52 (28.4)
	Bad	6 (3.3)
The duration of the marriage (year)	< 1	9 (4.9)
	≥ 1~< 3	34 (18.6)
	≥ 3~< 6	84 (45.9)
	≥ 6	56 (30.6)
The nationality of wife	Vietnam	84 (45.9)
	Philippines	38 (20.8)
	Cambodia	33 (18.0)
	Others (Japan, China, et al)	28 (15.3)
The difference in age	≤ 10	82 (44.8)
	11~20	95 (51.9)
	≥ 21	6 (3.3)
Satisfaction in living with a wife	Yes	172 (94.0)
	No	11 (6.0)
The difficulties of international marriage†	The difference in language and culture	48 (26.2)
	Food	44 (24.0)
	Personality	26 (14.2)
	Economy	15 (8.2)
	Conflict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12 (6.6)
	The education of one's children	12 (6.6)
	Anxiety for escape of a wife	7 (3.8)
	A feud with the neighbours	1 (0.5)

† Multiple response.

Table 2. Levels of Variables (*N*=183)

Variables	M±SD	Min	Max
Stress	4.48±1.94	0	9
Coping behavior			
Problem	2.21±0.46	1.00	3.75
Hope	2.42±0.49	1.00	3.80
No	2.47±0.42	1.00	3.50
Social support	2.35±0.46	1.00	3.57
Positive	2.18±0.53	1.00	3.75
Tension	2.43±0.53	1.00	4.00
Self-esteem	29.69±4.34	15	39
Powerlessness	117.76±36.64	50	221

록 무력감이 높았고, 필리핀 여성을 아내로 맞이한 대상자가 캄보디아 여성을 아내로 맞이한 대상자보다 무력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4. 스트레스, 자존감, 무력감 간의 관계

본 연구대상자들의 스트레스와 자존감 및 무력감 간에는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와 자존감(r=-.23, p=.002)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스트레스와 무력감(r=.41, p<.001)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자존감과 무력감(r=-.63, p<.001)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4).

5. 무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무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주요변수인 스트레스와 자존감 의 2변인 및 일반적 특성 중에서 무력감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아내직업 유무, 월수입, 아내국적, 외국인 부인에 대한 만족 변수를 아내직업 있음, 월수입 100만원 미만인 경우, 아내국적이 필리핀인 경우, 부인에 대해 만족함 등을 더미변수화한 4변인의 총 6변인을 독립변수로, 무력감은 종속변수로 하여 후진제거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시키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독립변수의 상관계수가 모두 .80 미만(r=-.23~.63)으로 나타났으며, Durbin-Watson의 오차의 자기상관 계수는 1.665, VIF 값은 1.023~1.101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어 변수 모두 분석에 이용되었다.

그 결과, 자존감(β=-0.54, p<.001)과 스트레스(β=0.28, p<.001), 월수입 100만원 미만인 경우(β=0.13, p=.016)와 아내 직업이 있는 경우(β=0.12, p=.036)가 유의미한 예측력을 가지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44.22, p<.001), 이 4변인들은 무력감 전체 변량의 4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존감이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월수입이 100만원 미만이고, 아내의 직업이 있을수록 대상자의 무력감이 증가함을 의미한다(Table 5).

논 의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외국인 부인과 살면서 지난 한 달 동안 느꼈던 스트레스 정도는 VAS로 측정한 결과 평균 4.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가정 시어머니들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5.03이었던 것(Kim, Park, & Sun, 2009)에 비해 약간 낮은 수치이다. 또한, 사용한 도구는 다르지만 경남 지역에 살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스트레스 정도가 5점 만점에 2.62로 1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5.24인 점수보다(Choi, 2011) 더 낮은 정도이다. 이는 한국의 중년남성이 자신의 문제를 외부에 드러내는 것을 꺼려할 수 있으므로(Lee, 2010) 스트레스 정도를 낮게 표시하였을 수도 있고, 외국인 아내와 사는 것에 만족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던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때문에도 가능한 결과로 보인다.

본 연구대상자들에게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생활에서 느끼는 애로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하게 한 결과, 언어 및 문화 차이로 인한 애로 사항이 26.2%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음식과 관련된 것이 24.0%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결과(Shin, Choi, Kim, & Yi, 2011)와도 유사한 것이다. Baltas와 Steptoe (2000)의 터키-영국인 부부간 연구에서도 터키 사회의 전통적인 성역할 유형 때문에 이들 부부들이 문화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Jung과 Ha (2012)는 한국인 남성이 이주여성과 함께 가족을 이루어 살아가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주변화되어 가는데 이 때 가장 힘든 부분은 문화적 충격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국제결혼 부분의 문화적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부를 대상으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Nakashima, Park, Park, Kim, & Nakajima, 2011)이 필요하리라 본다.

자존감의 경우는 평균 29.69로 중간 점수보다 조금 더 높았다. 이는 동일한 도구로 측정했을 때 서울, 경기 및 부산,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30~50대 남녀 성인의 자존감 평균이 30이었던 것(Roh, 2009)보다 낮은 결과이다. 또한, 국제결혼 이

Table 3. Stress, Self-esteem, and Powerlessnes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83)

Characteristics	Categories	Stress			Self-esteem			Powerlessness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Age (year)	25~39	4.87±2.05	1.61	.203	3.00±0.39	0.82	.442	2.70±0.78	1.28	.280
	40~49	4.28±1.87			2.97±0.45			2.54±0.83		
	50~60	4.55±1.95			2.86±0.47			2.80±0.82		
Religion	Having	4.15±1.20	-1.89	.060	3.01±0.43	0.97	.336	2.65±0.86	0.49	.627
	Not having	4.70±1.87			2.94±0.44			2.59±0.78		
Employment status of the subject	Employed	4.36±1.93	-2.81	.006	2.97±0.43	0.58	.564	2.58±0.79	-1.97	.051
	Unemployed	5.80±1.57			2.91±0.50			3.01±0.97		
Employment type of the subject (n=168)	Office job	4.44±1.76	0.69	.600	3.01±0.39	1.79	.134	2.55±0.74	1.31	.269
	A private business	4.41±1.90			3.10±0.39			2.52±0.79		
	Technical work	3.97±1.94			2.95±0.45			2.47±0.81		
	Production work	4.57±1.89			2.87±0.44			2.63±0.79		
	Laborer	4.67±2.50			3.08±0.43			3.03±0.79		
Employment status of the wife	Employed	3.95±2.16	-1.33	.184	2.74±0.46	-2.63	.009	3.05±0.93	2.64	.009
	Unemployed	4.55±1.90			3.00±0.42			2.56±0.78		
Income (10,000 won/month)	<100	5.21±2.23	2.20	.090	2.93±0.42	1.36	.258	3.02±0.89	6.87	<.001
	≥100~<200	4.58±1.87			2.92±0.45			2.72±0.78		(a>b>c>d)
	≥200~<300	4.10±1.80			3.03±0.40			2.40±0.73		
	≥300	4.00±2.38			3.17±0.55			1.80±0.62		
Living arrangement	With a wife	4.19±1.99	0.66	.619	2.92±0.49	0.75	.559	2.59±0.72	1.06	.377
	With a wife & parents	4.25±1.91			2.81±0.47			2.72±0.95		
	With a wife & children	4.75±1.95			2.97±0.41			2.66±0.81		
	With a wife & parents & children	4.46±1.77			3.01±0.43			2.68±0.84		
	Others	4.19±2.23			3.04±0.42			2.29±0.83		
Number of children	0	4.14±1.99	1.12	.343	2.94±0.43	2.19	.090	2.54±0.71	1.37	.253
	1	4.57±1.95			3.03±0.44			2.61±0.87		
	2	4.40±1.88			2.90±0.39			2.59±0.71		
	≥3	5.30±1.70			2.72±0.47			3.11±1.00		
Status of health	Very good	4.50±2.53	0.09	.964	3.11±0.43	0.64	.591	2.35±1.00	0.58	.627
	Good	4.42±1.80			2.96±0.43			2.63±0.79		
	Average	4.60±2.10			2.96±0.45			2.66±0.83		
	Bad	4.50±1.87			2.85±0.33			2.73±0.66		
The duration of the marriage	<1[a]	2.67±1.87	3.21	.024	3.11±0.15	0.39	.761	2.26±0.35	1.25	.292
	≥1~<3[b]	4.59±2.12		(a<d)	2.95±0.53			2.75±0.89		
	≥3~<6[c]	4.44±1.91			2.98±0.40			2.55±0.82		
	≥6[d]	4.77±1.75			2.95±0.46			2.70±0.80		
The nationality of wife	Vietnam[a]	4.23±1.92	6.74	<.001	2.97±0.45	1.34	.262	2.67±0.84	3.66	.013
	Philippines[b]	5.29±1.80			2.88±0.40			2.80±0.75		(b>c)
	Cambodia[c]	3.61±1.77		(c<a<d<b)	3.08±0.49			2.21±0.76		
	Others[d]	5.18±1.81			2.94±0.35			2.69±0.75		
The difference in age	≤10[a]	4.91±1.70	6.07	.003	2.97±0.45	0.49	.611	2.70±0.82	1.36	.259
	11~20[b]	4.03±1.95		(a>b)	2.95±0.42			2.53±0.79		
	≥21[c]	5.67±3.08			3.13±0.45			2.90±1.13		
Satisfaction in living with a wife	Yes	4.33±1.86	-4.33	<.001	2.98±0.43	1.92	.056	2.57±0.79	-2.89	.004
	No	6.82±1.54			2.73±0.40			3.29±0.94		

주여성의 자존감이 35.4였던 것(Park, 2011)보다는 낮은 점수이다. 자존감이란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가치에 대한 주관적 판단과 평가를 내포하는 개념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 방식에 따라 격려받을 수도 있고, 좌절될 수도 있다. 그런데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Kim, 2011) 대상자들은 국제결혼을 하기 전 국내에서 많은 선을 본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부분 부정적인 경험들이 많았다. 이들은 적응기에 들어가기 전까지 좌절과 포기 등의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배우자와의 불편한 의사소통이나 문화적 이질감 및 성격차이가 더

크게 느껴져 결혼생활에 대한 후회와 갈등으로 인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였다. 또한, 결혼을 한 이후에는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성이 결혼생활의 의미를 힘의 균형을 유지해 나가는 과정으로 제시하였는데(Kim, Park, & Windsor, in press) 국제결혼을 한 남편들은 다른 일반인 남편과는 달리 국제결혼이라는 상황의 차이로 인해 실망과 좌절을 통해 결국 힘의 균형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이로 인해 자신에 대한 개념이 낮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국제결혼 남성들의 인식을 변화시켜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일반적 특성 중 대상자의 스트레스는 대상자의 직업유무, 결혼 기간, 아내 국적, 나이 차, 외국인 아내에 대한 만족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직업유무는 경제적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상자의 직업이 없을 경우 스트레스 정도가 높았다. 기존 연구(Kim, 2008)에서도 주로 농촌과 도시하류층 남성들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데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심각하게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22개국 나라의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도 대상자가 무직이거나 직장에 다닐 지라도 수업이 감소할 경우, 그리고 배우자의 직업유무에 따라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었던 결과(Kawakami et al., 2012)를 보아도 경제적 문제는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결혼기간이 6년 이상인 경우는 1년 미만인 대상자의 스트레스 정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결혼 남성들이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차이로 인한 소통의 단절을 경험하지만 이 갈등을 공유하면서 극복하고자 노력하여 결국 안정 속의 신뢰와 희망을 찾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Kim (2009)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결혼기간의 경과에 따라 국제결혼한 부분의 스트레스나 갈등은 어떻게 변하는지 질적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 이러한 갈등을 예방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결혼기간에 따른 각 부부의 특성을 감안한 부부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효율적일 것이다.

대상자의 스트레스는 아내의 국적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사후 검증 결과, 필리핀 국적의 아내와 살고 있는 대상자의 스트레스 정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일본이나 중국 등의 기타 국적, 그리고 베트남, 캄보디아 순으로 나타났다. Kim, D. S. (2012)의 연구에서는 필리핀 아내와 결혼한 남성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한국남편의 결혼지속 기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여성의 국적만을 가지고 남편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다소 제한이 있으므로 추후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좀 더 심층적이고 객관적이 조사가 필요하다.

아내와의 나이 차이는 아내와 10세 이하의 차이가 나는 대상자가 11~20세 차이가 나는 대상자보다 스트레스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Song & Park, 2008)에서는 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주여성의 연령, 배우자와의 연령 차이, 이주여성과 남편의 학력 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와 달리 국제결혼을 하지 않은 한국 남성의 경우에서는 배우자와의 연령 차이가 크지 않을수록 가족생활 적응이 긍정적이었던 결과(Park, 2009)를 볼 때, 연구결과에 차이는 있지만 배우자와의 연령

Table 4. Correlation among Study Variables (*N*=183)

Variables	Stress	Self-esteem	Powerlessness
	r (*p*)	r (*p*)	r (*p*)
Stress	1	-.23 (.002)	.41 (<.001)
Self-esteem		1	-.63 (<.001)
Powerlessness			1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Powerlessness† (*N*=183)

Variables	B	β	t	*p*
Self-esteem	-1.00	-0.54	-9.56	<.001
Stress	0.11	0.28	5.06	<.001
Less than 1,000,000 (won/month)	0.31	0.13	2.42	.016
The presence of job of the wife	0.30	0.12	2.12	.036
		R^2=.50, Adj R^2=.49, F=44.22, *p*<.001		

† Backward multiple linear regression; Independent variables: Stress, self-esteem, the presence of job of the wife, less than 1,000,000 (won/month), Philippines, and satisfaction in living with a wife.

차이가 결혼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주여성과 남편 간의 나이차에는 세대 간의 차이 및 국가에 따른 문화적 차이가 포함되므로(Kim & Choi, 2012)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할 때, 이주여성뿐만 아니라 남편을 대상으로도 연령 차이가 큰 배우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내용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대상자의 자존감은 아내의 직업유무에 따라서만 차이가 있었다. 외국인 아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대상자의 자존감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자존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7%로 남성보다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2). 이 중에서도 국제결혼한 이주여성의 현재 취업상태를 보면 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8.7%에 불과한 상태이다(Park & Seon, 2010). 대개 외국인 아내가 직업을 가지는 경우는 결국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본 연구에서도 아내가 직업을 가진 경우, 일부 아내들을 제외한 66.7%가 노무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어려움을 예측할 수 있고, 이는 남편의 경제력도 그만큼 어려움을 뜻하는 것이므로 남편으로서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 중 외국인 아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월수입이 적을 때, 그리고 필리핀 여성을 아내로 맞이한 경우에 무력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도 필리핀 여성을 아내로 맞이한 남편의 스트레스 정도가 가장 높았는데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없어 본 결과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제시하기 어렵다. 다만 문화적 배경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사고하고, 생활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 그 지역사람과 결혼한 사람보다는 좀 더 많은 압박과 갈등을 받기 마련이므로(Shu, Lung, & Chen, 2011)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도 남편을 대상으로 아내의 문화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무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자존감과 스트레스, 월수입 100만원 미만인 경우와 아내의 직업이 있을 때가 무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자존감은 무력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국제결혼을 한 부부나 내국인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없어 이를 직접 논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Im과 Kim (2011)은 자살을 시도했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상자들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자존감이 저하되고 그로 인해 삶이 무력해지면서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고려할 때 대상자의 자존감이 무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무력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자존감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스트레스 역시 대상자의 무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무력감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 관련 스트레스와 무력감 간의 관련성을 본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Kim과 Hyun (2010) 역시 중년남성의 스트레스는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한다고 보고하여 스트레스가 무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정도와 간단한 스트레스 상황만 파악하였는데 본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국제결혼을 한 남성의 스트레스 내용은 국제결혼을 하지 않은 남편들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내용과 차이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국제결혼 한국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스트레스 원인을 파악하고, 각 대상자의 원인에 따른 해소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편을 위한 스트레스 도구는 없는데 향후 적합한 스트레스 도구를 개발하면 이들이 경험하는 특징적인 스트레스 상황이나 정도를 더 잘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월수입이나 아내의 직업여부와 같은 경제적인 요인이 무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여성들이 결혼한 후 반복적이고 지나치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할 때 남편과의 갈등이 고조된다고 한 Kim (2011)의 연구결과를 볼 때, 직업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 남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월수입이 적은 경우 역시 대상자의 무력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년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경제적 수준이 '하'라고 응답한 경우가 '상'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비해 무력감 정도가 높게 나왔던 결과(Choi & Lee, 2010)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남편의 월수입이 낮으면 자연히 아내가 직업을 가져야 하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국제결혼 남성들의 경우는 경제적 요인이 심리적인 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Seo와 Jeong (2010)의 연구에서도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경제적 만족도 영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고, 결혼만족도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관적 경제수준이 포함된 것을 보아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결혼만족도나 부부 간의 갈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때에는 대상자가 가장으로서의 무력감을 느낄 수 있으리라 예측된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결혼생활에 있어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한국인 남편이나 외국인 아내들이

노무직이 아닌 좀 더 안정된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국가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부부관계의 결혼적응에서는 남편이 주도자이므로 아내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남편의 역할 및 인식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대상자에게만 실시되어 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무력감과 같은 심리상태가 자기기입식의 설문도구로 조사되었으나 추후 구조화된 인터뷰와 같은 좀 더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자료수집방법으로 측정될 필요가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여성 결혼이민자 남편의 무력감은 자존감이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월수입 100만원 미만인 경우, 아내가 직업이 있는 경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남편에서 높은 스트레스와 낮은 자존감과 같은 정신건강 요인 및 낮은 소득수준과 아내의 경제활동에의 참여와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무력감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 간호사는 취약계층에 속하는 결혼이민 가정을 대상으로 한 간호서비스 수행 시 사회경제적 요인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건복지자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력감을 완화하도록 돕는 치료적 의사소통 및 상담을 수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신체적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향후에 이들 대상자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존감의 경우 다른 변인들에 비해 무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나 대상자들의 자존감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국제결혼 한국인 남성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대상자들에게만 실시되어 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점이 있지만 그동안 다문화가정의 주요 구성원이면서도 이주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져 온 한국인 남편들의 심리적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REFERENCES

Baltas, Z., & Steptoe, A. (2000). Migration, culture conflic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turkish-british married couples. *Ethnicity & Health, 5*(2), 173-180.

Choi, J. H. (2011). A study of stress and family strength of immigrant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6*(4), 29-46.

Choi, M. K., & Lee, Y. H. (2010). Depression, powerlessness, social support, and socioeconomic status in middle aged community resi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9*(2), 196-204.

Her, S., Kim, K. H., & Oh, H. S. (2012). A study on work condition, stress, role conflict and job satisfaction of infection control nurses working in general hospital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24*(4), 327-338.

Im, M. K., & Kim, Y. J. (2011). A phenomenological study of suicide attempts in eld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4*(1), 61-71. http://dx.doi.org/10.4040/jkan.2011.41.1.61

Jang, S. H., & Kim, K. H. (2009). Effects of self-foot reflexology on stress, fatigue and blood circulation in premenopausal middle-aged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9*(5), 662-672.

Jeon, B. J.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nchong, 11*, 107-129.

Jeon, M. H. (2012). *Qualitative study about self-esteem and sociality of women who are victims of family viol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ngbuk University, Daegu.

Jung, E. J., & Ha, K. S. (2012). Effect of male spouses' bicultural stress, communication and their marital satisfaction in multi race & culture family. *Journal of Contents, 12*(2), 222-231. http://dx.doi.org/10.5392/JKCA.2012.12.02.222

Kawakami, N., Abdulghani, E. A., Alonso, J., Bromet, E. J., Bruffaerts, R., Caldas-de-Almeida, J. M., et al. (2012). Early-life mental disorders and adult household income in the world mental health surveys. *Biological Psychiatry, 72*(3), 228-237. http://dx.doi.org/10.1016/j.biopsych.2012.03.009

Kim, D. S. (2012). Spousal dissimilarity in age and education and marital stability among transnational couples in Korea: A test of the transnational openness hypothesis. *Korean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5*(1), 1-30.

Kim, H. S., & Choi, Y. S. (2012). Factors related to the awareness for the needs of family counseling for married immigrant women.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7*(3), 435-456.

Kim, J. B., & Um, I. S. (2011). A study on the university students' recognition on the international marriage. *Journal of Public Welfare Administration, 21*(1), 51-73.

Kim, J. H., Lee, W. J., & Lee, D. W. (2010). The effects of massage to clavicle region in middle age women for stress. *The Korea Journal of Sports Science, 19*(1), 783-793.

Kim, J. R. (2008). The status of intermarriage women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amily Law, 22*(1), 91-122

Kim, K. H., Park, G. S., & Sun, J. J. (2009). Stress of mothers-in-law form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1*(6), 639-651.

Kim, M., Park, G. S., & Windsor, C. (in press). Marital power process of Korean men married to foreign women: A qualitative study. *Nursing & Health Sciences*.

Kim, M. J., & Hyun, M. H. (2010). The relationships between stress,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hwa-byung of men.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5*(1), 19-33.

Kim, M. K. (2009). Ethnographic research on the "married life" of international married me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4*(3), 179-211.

Kim, M. K. (2011). A study on life history of intermarried Korean men's family dissolutio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29*(4), 1-15.

Kim, N. Y. (2012). *The effect of perceived stress and self-esteem on depression among north Korean refugee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discrimination and suppressive coping sty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im, O. N. (2006).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marital conflicts of immigrant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im, Y. M. (2010). Neighborhood environment, family environment stress, and learned helplessness among adolescents. *Mental Health & Social Work, 36*, 232-262.

Lee, Y. H. (2010). Grounded theory approach toward marriage adjustment in Korean men with international marriage. *Journal of Social Welfare Development, 16*(3), 265-287.

Metalsky, G. I., Joiner, T. E., Hardin, T. S., & Abramson, L. Y. (1993). Depressive reactions to failure in a naturalistic setting: A test of the hopelessness and self-esteem theories of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1), 101-109.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Republic of Korea. (2010. 12. 28). *2010 National domestic violence*. Retrieved January 23, 2013, from http://enews.mogef.go.kr/view/board/bbs/view.jsp

Nakashima, N., Park, I. A., Park, J. S., Kim, J. S., & Nakajima, K. (2011). The relations between abuse experiences in multi-cultural family couples and social-demographic factor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1*(3), 140-164.

Park, C. K. (2009). A study on international married woman migrants and their husbands' adjustment on family lives in Gyeonggi-do province. *Health and Social Science, 26*, 137-163.

Park, M. S. (2011) Relationship between married immigrant women's self-esteem and resilience-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psychology happiness-. *Journal of Contents, 11*(5), 393-402. http://dx.doi.org/10.5392/JKCA.2011.11.5.393

Park, N. H., & Seon, N. Y. (2010). The effect of employment on immigrant women's adaptation to Korean society. *Research of People, 41*, 120-196

Park, S. H., & Kim, H. H.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and adolescents' academic stress and learned helplessnes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5*(3), 159-182.

Roh, K. I. (2009). The study of relationship among spirituality, self-esteem and religion.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0*(4), 2591-2606.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ston, NJ: Prinston University Press.

Seo, H., & Jeong, H. N. (2010). Factors affecting Korean males: Marital satisfaction of the international marriage in the Gyeognam province areas.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26*(3), 27-48.

Shin, H. C., Choi, J. H., Kim, H. S., & Yi, J. Y. (2011). A qualitative study on examining marital relationships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urban area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3*(2), 299-322.

Shin, K. M. (1990). *On the development of a learned helplessness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Seoul.

Shu, B. C., Lung, F. W., & Chen, C. H. (2011). Mental health of female foreign spouse in transnational marriages in southern Taiwan. *BMC Psychiatry, 11*(4), 1-9.

Song, M. Y., & Park, K. H. (2008). The decision factor on marriage satisfaction of an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ted women in rural communities.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26,* 53-70.

Statistics Korea. (2012. 6. 26). *2012 Life of women by statistics.* Retrieved August, 7, 2012,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3/index.board?bmode=read&aSeq=258512

Wong, F. Y., DiGangi, J., Young, D., Huang, Z. J., Smith, B. D., & John, D. (2011). Intimate partner violence, depression, and alcohol use among a sample of foreign-born Southeast Asian women in an urban setting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6*(2), 211-229. http://dx.doi.org/10.1177/0886260510362876